환차익만을 노리는 환율장사

(마20:17-19)

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환차익만 노리는 환율장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환차익만 노리는 환율장사'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생각 안 하고 환차익만을 노리는 환율장사.
여러분, 환차익이라는 게 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알아도 명확하게는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 한국 땅에 한 수출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상품을 수출했습니다.
1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고 가정하면 항상 물건을 팔 때, 물건을 파는 시점이 있고 그리고 그 물건에 해당되는 가격을 결제 받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달러어치의 물건을 팔고 나서 2개월 뒤에 1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 시간이 참 중요해요, 환차익이라는 것은.
10만 달러어치의 물건을 계약할 당시는 달러당 천원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억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2개월 뒤에 결제를 할 때 10만 달러를 받아서 은행에 넣었더니 달러당 12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고스란히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또 거꾸로, 환차손이라고 하면 계약 당시의 천 원이던 것이 결제 시점에 800원으로 줄어들어서, 1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2개월 뒤에 8천만 원을 받게 되니까 2천만 원이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날아가 버린 경우지요.
이러한 환차손, 환차익을 고려해서 물건을 사고파는 게 아니라, 아예 예상을 해가면서 1달러당 천 원일 때, 달러를 10만 불 사두었다가 1200원으로 올라가면 그때 한국 돈으로 바꿔서 1억 2천만 원으로 만드는, 아예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는 주식과도 같은 환차익만을 노리는 사람들을 환율장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별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획하고 정력을 쏟아 부어서 무엇을 성취하려 하지 않고, 요렇게 약아빠지게 환차익만을 노리면서 살아가는 환율장사 같은 자들이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의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환율장사 같이 얄밉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인생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열심히 살아간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약아빠져서 환차익에 의한 인생의 성공을 노리는 환율장사들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가 삼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만 전후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좀 더 달라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삶을 환율장사로 살게끔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환율장사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이야기들이 다 뭐였습니까?

19장에 부자청년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면 대강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청년의 영생에 대한 고민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인생을 경주라고 보시는 차원에서 부자청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부자청년으로 인해서 시작된 대화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부자청년은 이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되는 성취의 경주에 있어서 앞서간 사람이고 먼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사인볼트처럼 젊은 나이에 부자 되기 경주에서 앞서가는 자였고, 관직에 있는 자니까 높아지는 경주에서 앞서간 자였습니다.

그것을 의식하시고 '이 성취의 경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내가 천국을 이 세상에 가져옴을 통하여 이 경주가 반전되어버리고 만다,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 결승점이, 인생에서 지금 성취의 경주에서 출발점에 놓이게 됨으로써 그 이전에 이 경주에서 앞서간 사람일수록 돌아오려면 뒤쳐진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천국을 가지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다음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는 좀 더 내면적인 상태를 조명하시면서 몸값경주를 염두에 두시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씀을 또 반복하셨습니다.
자기가치를 좀 더 높게 책정하려는 경주에 뛰어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것을 원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경주에도 주님께서 천국을 갖고 오시는 바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주어진 것을 더 받으려는 마음 대신에 언제나 과분하게 여기는 마음상태가 천국에 가깝다, 자기 몸값을 적게 책정하고 있는 자, 자기 가치를 높이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이 반전된 경주에서 결승점에 더 가까이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반전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성취의 경주에서 앞을 보고 달려가고 있고 몸값의 경주에서 앞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는 혼자서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실제로 반전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사건을 다시 한 번 여기다가 갖다 붙여주시는 겁니다.
어차피 제자들은 십자가사건을 예고하셔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붙이시느냐?
부자청년과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경주에서 진짜 반전을 실제로 이루려면 십자가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아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십자가사건이 왜 이러한 반전을 이루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게 환율장사로 산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시기 이전의 모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모든 사람, 아니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성취의 경주, 몸값의 경주에 끼어들어서 앞을 보고 가는데, 그 앞을 보고 달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소망을 향해 달린다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성취, 더 많은 성취, 더 높은 몸값을 향하여 자기 계발을 하고 노력하며 뛰어가는 겁니다.
이 경주를 추진하게 하는 추진력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이 소망을 환전하라는 이야기예요.
한국 땅에서 한국 돈을 쓰다가 미국에 가려고 하면 미국 돈으로 환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환전의 차익이 생겨나는 건데,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환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을 환전합니까?
자, 내가 이제 2년 쯤 뒤에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옮기고 싶다, 그래서 돈이 많이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집에 대한 소망을 천국 소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환전하라는 겁니다.
'아, 집이 있으면 좋겠다!'를 '아, 지금 천국이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이 생기고 바람이 생기면 그 바람과

소원을 '아, 내가 지금 승천하신 주님과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하늘아버지를 만나서 결합하면 얼마나 좋을까?'로 지금 이 소망을 환전하라는 얘깁니다.

십자가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소망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하면, 소망의 기운을 아예 묵살해버리고 없애지 말고 그 기운을 다시 살려내서 그 소원의 힘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이 세상을 향한 소망, 이 세상을 향한 소원,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생기는 바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소원의 힘 자체를 묵살하지 말고 그 소원의 힘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으로 환전하는, 날마다 환전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 소망, 땅의 소망, 땅에서 원하는 것, 잔잔한 소망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갈 때 주머니에 있는 천 원짜리, 만 원짜리, 다 달러로 환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느끼게 되는 자그마한 소원까지도 다 하늘나라 소원으로 바꿔서, 하여간 땅에서 소원이 생길 때마다 그 소원을 환전하는 겁니다.
'아, 맛있는 것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조차도 '아, 지금 우리 주님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 소원으로 다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때, 여러분, 이게 소망을 바꾼 거잖아요?
소망의 특징이 뭡니까?
소망이 성취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10만 달러어치를 계약하고 두 달 뒤에 결제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야 환차익이라는 것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천국 소망으로 환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환전을 해놓는 겁니다, 천국소망으로.
그러면 어떤 환차익이 생기느냐 하면, 그렇게 나는 소망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대단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정열을 기울여서 쏟아 넣은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십자가 붙잡고 이 땅 소망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소망으로 소망을 바꿨을 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느끼고 싶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지금 이 자리에서 승천하신 주님과 결합하고 싶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를 ‘천국 때문에…’로 바꾼 것뿐인데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하느냐?
진짜 지금 하늘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 승천하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고 내 마음에 소유되는 것이고, 그 천국을 내가 향유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때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게 없어져버려요.

제가 그랬지요?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고.
돈이 많은 사람과 부자는 다릅니다.
돈이 많아도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가난뱅이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가난뱅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천국 때문에 기뻐가지고 돈을 써서 얻는 기쁨이 기쁨이 안 되는 사람, 돈을 버는 기쁨도 의미가 없고 돈을 쓰는 기쁨도 의미가 없는 이런 상태가, 천국을 실제로 갖게 될 때, 천국소망으로 환전해서 그 소망을 유지해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환차익이 발생해서 실제 천국이 느껴질 때, 돈이 많아도 돈 있는 재미, 돈 쓰는 재미, 돈 버는 재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돈이 많아도.
그리고 이 사람만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돈이 없어도 가난뱅이가 안 되는 이유는 천국을 갖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전을 해야 돼요, 하여간 이 땅에서 무슨 소원이 생기든지 환전을 해버려요, 이게 소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를 붙잡고 소망을 바꾸지 않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서 내 위에 천국이 실재하고 있고 그 천국에 내 아버지가 실제로 내 하나님으로 계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실제로 그곳에 계신다고 하면 실재하는 그 천국과 아버지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일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당연하지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고 그 사실이 실제라면.
주님이 실제로 천국에 계셔서 지금 내 마음에 와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만나질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아파트가 커질 것을 소망하고 내 몸값이 올라갈 것을 소망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을 소망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을 지금 만나기를 소망하지 않는 모든 심령은 하나님과 천국을 실제로 믿지 않거나 실재라고 느끼고 믿는 그 감도가 돈의 실재, 자식과 가족의 실재, 아내와 남편의 실재보다 훨씬 덜 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천국이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 때보다도 내 것이 되기만 하면 더 좋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이 세상살이 속에서 생겨나는 정말 깨알같이 작은 소원이라 할지라도 다 천국소망으로 바꿔버리세요.
'아, 돈 벌었으면 좋겠다!' 대신에 '아, 지금 천국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천국소망으로 환전을 해서 갖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실재 천국, 실재 하나님아버지, 실재 승천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 천국이 느껴질 때의 상황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를 해나갈 수가 없지요.
스스로 느껴봐야만 되는 거지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십자가 붙잡고 세상 소원에 대해 죽고, 그 소원의 힘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소원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 그렇게 환전을 해놓고 시간을 기다려요.

그 소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천국소망으로 환전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먼저 소망했던 부분, 나중 소망했던 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환차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살이를 위하여 대단한 계획과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붓는 대신에 정말 게을러빠진 사람처럼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단지 천국소망으로 바꾸게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소망에 대해 죽고, 부활하여 천국소망만을 마음에 지니게 해주시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차익이 발생해서 실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